



성폭력 예방 탈 인형극

3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장신초등학교에서 열린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이 어른들의 성추행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가르쳐주는 탈 인형극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기자 jeans@kwangju.co.kr

'도가니 사태' 인화학교 2차 공판 열린 광주지법 형사대법정

8년전 아픈 기억 되짚으며 '진실찾기'

'성폭력 트라우마' 시달리는 목격자는 불출석

"과거의 아픈 기억을 또 8년 만에 되짚어 수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처럼 힘들겠습니까?"

영화 '도가니' 이후 시작된 경찰의 추가조사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3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대법정 201호.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지난 2005년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 등 50여 명이 찾아 공판을 지켜봤다. 재판부인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청각장애인 증인들

을 위해 수화통역자를 선임했으며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검찰 측의 증인 심문, 증인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인화학교 교내에서 당시 17살인 원상의 손발을 끓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직접 목격했다는 청각장애인 고모씨는 불출석했다.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성폭행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는 김씨가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증인심문을 받고 싶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기 때문이다.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지난해 언제 어디서 고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수화통역자를 잠시 바라보던 노씨 등은 조금은 과장된 순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미 김씨가 탑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노씨였다. 김씨와 변호인은 노씨 등의 증언이 신

빙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씨는 "이미 이에 대해서는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실이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심문과 수화통역, 답변과 수화통역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3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진실 공방은 쉽게 마무리되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사안인데다 피해자 및 목격자 모두 장애인이며, 가해자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복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여전하며 재판에서 주고 받는 말로 인해 그 아픔 상처는 다시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이나 피해자의 인권을 감안한 재판 절차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3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보훈청 '나라사랑교육 운영협의회' 발족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은 3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나라사랑교육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후보자는 신축 이전으로 현재 방치된 옛 광주과학고(남구 주월동)와 옛 지원중(동구 학동), 옛 교육과학원(동구 동평동) 등 4~5곳이다.

시 교육청이 인화학교 카드를 포기한 것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해당 범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적 문제를 걸렸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후보지를 확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 차질

시교육청, 인화학교 포기 옛 지원중 등 4~5곳중 선택

광주보훈청(청장 안중현)은 3

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나라사랑교

육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나라사랑교육운영협의회는 광주

지방보훈청장을 회장으로 광주시, 전

남도,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광

주경찰청, 전남경찰청, 육군31사단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역내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된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와 우수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